

/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 대토론회 /

# 재생에너지 확산 위해선 에너지신산업 육성 필수

재생에너지 보급을 발판으로 새로운 산업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에너지신산업을 발전시켜 적극적으로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에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외부위원장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가 후원한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정부 관계자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에너지전환을 계기로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우원식 의원은 "에너지 외교정책을 밀착해야 한다"며 "새로운 에너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갖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고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는 일련의 사태를 꼬집은 것이다.

우 의원은 특히 RE 100에 동참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예로 들면서 재생에너지 사용이 기업의 경쟁력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애플, 구글 등은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덴마크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나섰다"며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기업들도 이 같은 흐름에 참여해야 하는데 제도 등은 막혀 있어 전력 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 에너지 전환 산업 육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전환과 더불어 산업육성을 함께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에너지 전환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므로 이에 발맞춰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 차관은 "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에너지전환을 계기로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에 직면하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2조7000억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역시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을 위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 태양광과 풍력 기술 개발에 40%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배정하고, 부가가치가 큰 풍력 부품 산업 육성과 태양광 폐모듈 처리 등 새로운 재생에너지 연관산업 육성을 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소규모 전력중개시장과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조성 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정 차관은 "오는 2019년에는 2.4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설치 목표를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우리 기업이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더불어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계획입지제도인,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서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중장기 대규모 사

업에 한전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축사에 나선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에너지전환과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에너지 신산업의 기술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시장에서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며 "민간이 하기 어려운 대규모 기획 개발 등에 한전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한전은 발전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전은 SPC를 통해 간접적으로 학교 태양광,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김 사장은 "(한전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신재생 사업을 더 열심히 해볼까 한다"며 "해외에서는 디지털 전환(transformation) 솔루션들이 적용되면서 새로운 (에너지) 사업이 생겨나고 있는데, 계통을 운영하는 한전도 신산업을 위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kimyj@

다만 차량 소유자가 과태료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사전접수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LPG 1t 트럭을 구매하는 자에게 정부지원금(최대 565만원) 외에 대한LPG협회를 통해 LPG 충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구체적인 충전 지원금 규모 등은 협회와 협의를 거쳐 지자체별 사업 공고일 에 맞춰 안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전신청 물량이 2019년 예산으로 편성된 950대보다 많을 경우에는 예산내역 조정 등을 통해 추가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생계형 차량인 1t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노후차량 운행제한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 환경부, 노후 경유차 폐차하면

### LPG 1t 트럭 구매시 최대 565만원 지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1t 트럭 전환사업' 사전신청자 모집을 시작한다.

LPG 1t 트럭 전환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의 추가로 4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9년 예산은 차량 950대에 대한 지원금 38억원(국비 19억원, 지방비 19억원)이 편성돼 있다. 사전접수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 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플랫폼(1833-7435)과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접수는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화 통화로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사전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지자체별로 1~2월 중 사업이 공고되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완료된다.

환경부는 정식 접수가 완료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비상지갑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접수시점으로부터 차량 폐차시점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폐차가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을 최종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예지 기자

## '환경오염 주범+경제성 낙제=퇴출론까지'

### 구겨진 석탄 위상 '회복이 안돼~'

김용균 씨 사망 '석탄 무용론' 촉매제 작용  
저렴한 이미지도 퇴색...재생E가 더 싸다

석탄의 위상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연말을 우물하게 만드는 인명 사고에 간접적으로 연루됐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퇴출론은 환경오염과 더불어 경제성에서도 낙제점을 받으면서 더욱 가속도가 붙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는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 계약직 김용균 씨가 지난 11일 이른 새벽 석탄이 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건이다. 떨어진 석탄을 치우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의 시신은 약 5시간 뒤에 경비원에 의해 발견될 정도로 안전관리에 취약점을 드러냈다.

물론 김 씨의 사망이 석탄 그 자체 때문에 일어난 것

전소의 96%보다 높다는 전망도 있다.

또 미국 자산운용사 라자드(Lazard)는 기후변화로 인한 외부비용을 고려했을 때 재생에너지원의 경제성이 더 좋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외부비용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수명 단축 등이다.

전 세계 주요 환경단체는 아예 대한민국 정부를 겨냥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에서 한국의 석탄 사용을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 석탄 투자 그만하세요' '석탄, 화석연료 이제 그만'이라고 영문과 한글로 적힌 플래카드와 '한국은 기후악당'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



청년전태일 및 청년민중당 소속 50여 명이 2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추모집회'를 진행하던 중 기후농성을 벌이고 있다.   
제공: 뉴시스

은 아니다. 효율성만 있다면 안전수칙은 가볍게 여기는 왜곡된 시스템의 폐해에 따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하지만 '석탄 무용론'이 힘을 받는 현시점에서 이 사건은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석탄이 구시대적 유물이라는 오명을 어느 정도 자인한 풀이 기 때문이다.

석탄은 경제 논리에서도 힘을 잃고 있다. 영국의 금융 싱크탱크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 석탄화력발전소의 42%가 사실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 미국은 780억달러, 중국은 3890억달러, EU(유럽연합)는 890억달러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는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이 현재 존재하거나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석탄화력발

를 벌였다.

미국의 환경단체인 NRDC(천연자원보호협회)와 그린피스 등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석탄 화력발전 금융지원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석탄 무용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병)은 대한석탄공사를 조기 폐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의원은 "기후변화대응이 시급한 시점에 석탄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부채는 증가 중이어서 대한석탄공사의 조기 폐업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배 기자 pjb@

## SK인천석유화학

### '인천시 산업평화대상' 기업체 부문 수상

SK인천석유화학이 21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제28회 인천광역시 산업평화대상' 시상식에서 '기업체 부문'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산업평화대상'은 지난 1991년 처음 열린 뒤 올해로 28회째를 맞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사 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단체 및 근로자 등을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는 전언이다.

특히 올해는 인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사 및 노노(勞勞) 간 갈등을 해소하고 산업평화에 기여한 단체와 근로자를 중심으로 수상을 선정했다.

시상식에는 인천광역시 하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김영국 의장, 인천경영자총협회 김학권 회장, SK인천석유화학 이배현 경영혁신실장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노사 화합을 위한 대화 창구의 다양화 및 열린 경영 실천, 생산성 향상과 안전 보합 필터 조성,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위한 지역사회 공헌 등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전했다.

박정배 기자

## 경찰, '펜션사고' 관련

### 가스안전공 등 4곳 압수수색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 경찰이 26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 보일러 시공업체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34명을 4곳에 동시에 투입,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펜션 보일러 연소시험 등 정밀 분석 결과와 광범위한 탐문 수사, 이날 압수수색한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입건 등 처벌 수순에 나섰다.

정문기 인터넷기자 mkchang@

## 활선상태에서 절연저항을 Multi 누설전류계로 비교측정

화재 두전사고 예방  
안전점검업체에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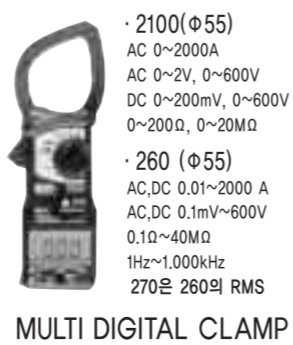
MULTI 누설전류계 MCL-800D  
0.01~200mA, 0.01mA~1,000A, 7~80m/m  
0.1~200mA 0.01A~1,000A



MULTI 누설전류계  
140 0.01~300mA, 0.01~300A, ±40m/m  
104 0.1~200mA 150A ±33m/m



비접촉식 온도계  
ST31.Lxu - 32~400 °C  
ST16.Lxu - 32~500 °C



MULTI DIGITAL CLAMP

· 2100 (Φ55)  
AC 0~2000A  
AC 0~2V, 0~600V  
DC 0~200mV, 0~600V  
0~200Ω, 0~20MΩ



· 260 (Φ55)  
AC, DC 0.01~2000 A  
AC, DC 0.1mV~600V  
0.1~40MΩ  
1Hz~1,000kHz  
270은 260의 RMS



DIGITAL 소음계(320)  
35~130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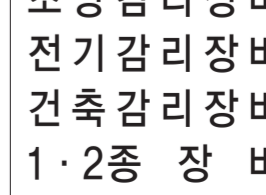
DIGITAL 조도계(1065)  
0.1~20,000



다기능계측기 MET500



거리측정기



UR1800 온도기록계



내전압시험기 50KV, 70KV, 100KV



HD8510 리레이테스타



3235 접지저항계  
0~1000Ω



3207 POLY TESTER



HD55 OT테스타



OT 산가측정기



DIGITAL 절연저항계  
250V, 500V, 1000V범용



www.hdj.com

YOKOGAWA, MULTI, MUSASHI 취급점 (주)현대전기계측기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99-1 태성B/D 106호  
TEL: 2279-0427, 2278-3944  
FAX: 2273-8758